

▶ 가족자원경영

직장인의 여가활동 유형별 시간배분 결정요인

김 아 님* (고려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박사과정)

한 지 수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강사)

본 연구의 목적은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서 직장인의 여가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직장인의 여가활동 유형별 시간배분과 그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여가활동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통계청에서 수행한 “2004 생활시간조사”를 사용하였으며, 이 중 임금·봉급 근로자 20,094개의 자료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분석을 위해 SPSS 12.0을 이용하여 평균, 백분율을 산출하고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2004생활시간조사”의 여가활동 유형 분류는 여가활동을 행동별로만 분류하여 그 속성에 대해서는 파악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가활동을 내용을 기준으로 ‘소일/오락형 여가’와 ‘자기개발형 여가’로, 형태를 기준으로 ‘소극적 여가’와 ‘적극적 여가’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교차시켜 ‘소일형 여가’, ‘오락형 여가’, ‘자기개발형 여가’로 분류한 윤인진·김상운(2004)의 분류를 기초로 직장인의 여가활동 유형을 알아보았다.

독립변수는 크게 개인관련 변수(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직장관련 변수(직업, 월평균 근로소득, 정기적인 휴무형태), 지각관련 변수(평소 바쁘거나 시간제약을 느끼는지, 평소 피곤함을 느끼는지)가 사용되었으며 통제변수로는 조사요일이 사용되었다.

분석 결과 직장인의 여가활동 유형 중 ‘오락형 여가’와 ‘자기개발형 여가’의 경우 0분 이상 사용한 사람의 비율이 각각 9.9%, 27.9%로 적게 나타나 시간량으로 회귀분석을 하기에 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러한 여가활동 유형에 시간을 배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하고 이를 종속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반면 ‘소일형 여가’와 ‘총 여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을 배분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영향 요인을 파악하였다. 최종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관련 변수 중 여성은 남성에 비해 소일형 여가가 적었고, 오락형 여가를 할 가능성이 낮은 반면 자기개발형 여가는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20대가 30대 이후의 연령대에 비해 오락형 여가를 즐길 가능성이 큰 반면 자기개발형 여가에 시간을 사용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는 기혼이 미혼에 비해 모든 여가활동을 더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자기개발형 여가를 즐길 가능성과 총 여가시간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장관련 변수 중 농어업·기능원·단순노무직에 비해 다른 모든 직업군에서 자기개발형 여가에 시간을 할애할 가능성이 컸으며 다른 여가유형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다. 한편, 월평균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소일형 여가와 총 여가시간은 감소하는 반면, 오락형 여가와 자기개발형 여가를 즐길 가능성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적 휴무상태에 따라 비교해보면 2주일에 하루만 쉬는 직장인에 비해 이보다 휴일이 많은 직장인이 모든 여가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각관련 변수 중 평소 바쁘거나 시간제약을 느끼는 경우 소일형 여가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락형 여가를 즐길 가능성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소 피곤함을 느끼는 경우 오락형 여가를 즐길 가능성은 큰 반면 소일형 여가시간은 적은 것으로, 자기개발형 여가에 시간을 배분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